

CEO 동경

'2012년 전국 VE 경진대회'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1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12년 전국 VE 경진대회에서 "지속적인 VE 추진을 통해 철도건설사업의 가치 향상을 더욱 확대 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2012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참여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1월 27일, 28일 양일간 1사촌 결연마을인 황산별참살이마을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며, 앞으로 나눔 대상을 더욱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청본부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1월 28일 정지고가 등 충청본부 관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의 혹서기 안전시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민과의 약속인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분당선(기흥~망포구간) 복선전철 개통

- 1일 206회 운행... 수원·용인지구 교통난 해소 기여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욱)는 분당선 기흥~망포(7.4km)구간 복선전철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일 개통했다.
 기흥~망포 구간은 사업비 4575억원을 투입해 '04년 12월에 착공했으며, 지난 11월 30일 청명역 인근 셋별공원에서 지역주민들과 국토부,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행사를 가졌다.
 본부 관계자는 "분당선 기흥~망포구간의 개통으로 새로운 수도권 전철 노선이 수원 시까지 연장돼 수도권 남부지역주민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출·퇴근시간은 7.5분, 평상시는 15분 간격으로 1일 206회 전동차를 운행하며 하루 약 9만명의 이용이 예상돼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내년엔 망포~수원 구간 공사를 완료해 분당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용인, 수원 지역에서는 서울 도심 및 강북지역까지 환승없이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수원에서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되는 등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해 수도권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전국 VE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신안산선 노반실시설계 VE'로 1578억 원 절감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욱)는 지난 11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2012년 전국 VE 경진대회'에서 '신안산선 노반실시설계 가치엔지니어링(VE)으로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26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가 제출한 총 30개의 우수사례에 대해 원가절감과 성능향상 효과(30%), 수행내용의 충실성(50%), 수행체계의 효율성(20%)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본부가 제출한 신안산선 노반실시설계 VE는 6.59%의 원가절감과 182%의 가치향상 등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반 실시설계 VE'의 주요 개선내용은 ▲개선된 환기기술 적용으로 본선 환기구를 정거장 외부설치에서 내부설치로 조정해 523억원 ▲신형 전동차의 높이 고려와 공동관로 및 배수로를 추가굴착 없이 설치하고 터널 단면을 56㎡에서 51㎡로 축소해 235억원 ▲다른 노선과의 연계방법을 입체교차에서 평면교차로 개선해 110억원 ▲역사 이용객 수요를 감안한 정거장 출입구를 4개소에서 2개소로 개선해 152억원 ▲역사 이용객의 동선을 감안한 역사 출입구 위치를 변경해(환승동로 연장)를 230m에서 100m로 축소) 34억원 ▲봉



경지 통과구간 갱내 차수그라우팅을 전면시공에서 부분시공으로 변경해 18억원 ▲소사~원시선에서 신안산선으로의 연계를 시용시청 정거장 부분선에서 본선으로 직접 운행토록 개선하고 부분선을 삭제해 186억원을 절약하는 등 총 예산 절감액은 1578억원에 달한다.
 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VE 전담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경제적 설계 및 시공에 역점을 두고 작년에는 1958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2700억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석종근 설계기준처장은 "앞으로도 설계 및 시공 VE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선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설계기준에 반영해 적정설계와 고품질의 철도건설을 통해 철도건설사업의 가치향상을 더욱 확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VE 경진대회는 설계 VE를 통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극대화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공공건설 사업비의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08년부터 주최해 온 행사로 올해가 다섯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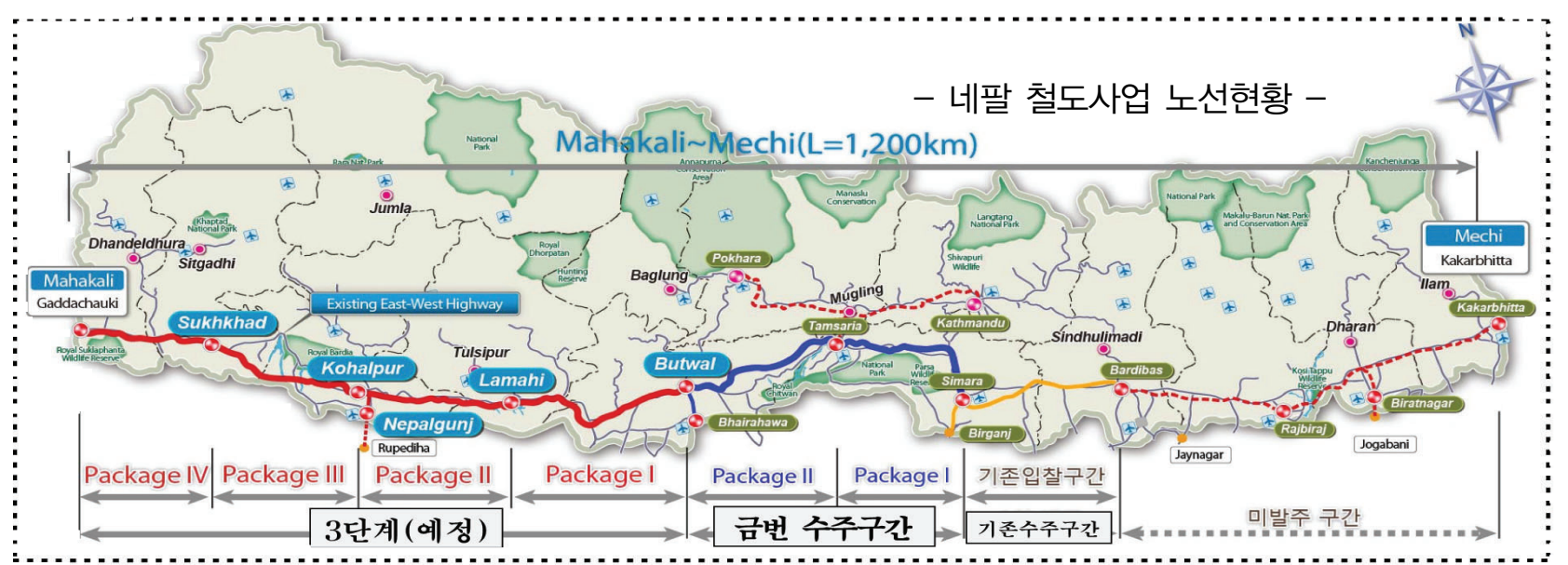
네팔 철도 실시설계사업 2건 수주

- 개발도상국 철도시장진출 확대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강근식)는 네팔 동서 연결철도 건설을 위한 시마라(Simara)~탐사리아(Tamsaria) 등 2개 구간 총 223km에 대한 실시설계(사업비 710만 달러) 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네팔 동서 연결철도사업은 메치(Mechi)에서 마하칼리(Mahakali)간 946km 철도를 신설해 이를 인도철도와 연결함으로써 화물 및 여객수요에 대응해 내륙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본부는 지난 5~6월에 네팔 철도국 공무원 13명에 대한 초청연수교육을 실시해 한국 철도건설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했으며, 7월에는 이사장이 네팔을 방문해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우리 공단의 경제적 설계능력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홍보했다. 또 8월에는 네팔 공공사업교통부 트리파티(Tripathi)장관 일행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 철도의 건설 및 운영현장을 직접 둘러보도록 하는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네팔의 철도건설 전문인력 양성 장기연수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제안하는 등 두 나라 간 철도분야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선정도 이러한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과 국제 교류협력사업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로써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본부는 작년 12월에는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최초 발주 구간인 시마라~바디바스(Simara~Bardibas) 등 2개 구간 136km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과 카트만두시 도시철도(MRT) 65.9km의 타당성조사용역을 수주한 바 있다.



수원시장, 기흥~망포구간 현장 방문

- 진행사항 확인 및 공사 관계자 격려 -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1일 분당선 오리~수원 복선전철 내 기흥~망포구간(7.4km)을 방문해 현장을 순시했다.
 이번 방문은 수원시 관계자 20여명도 함께 참여해 각 역별 공사 진행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리~수원 복선전철사업(19.5km)은 '07년도에 오리~죽전 구간, '11년도에 죽전~기흥구간이 개통됐으며, 금년 기흥~망포 구간에 이어 '13년 말에는 망포~수원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수도권본부 송호운 기자>